

<http://dx.doi.org/10.17703/JCCT.2021.7.2.325>

JCCT 2021-5-38

## 대학생의 치매교육에 따른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 - 치매지식 매개효과 중심으로 -

### Effect of Dementia Attitudes according to Dementia Education in University Students on the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 Mediating effect of dementia knowledge -

최희정\*, 김지숙\*\*, 김정은\*\*\*

HeeJung Choi \*, JiSuk Kim\*\*, JungEun Kim\*\*\*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치매교육에 따른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치매지식 매개효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대상자는 2개의 G 시에 소재한 U와 K 대학교 1~2학년 대학생, 306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였고, SPSS /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test, Pearson 상관계수 및 다중단계 회귀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치매교육 여부에 따른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과 치매태도에서 모두 교육집단이 비교육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과 치매태도 정도는 보통 이상이었고,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과 치매태도 모두 정상관관계가 있었다. 치매지식은 치매정책인식의 예측요인( $t=2.35, p=0.019$ )이면서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고, 설명력은 17.8%였다. 따라서 올바른 치매지식과 긍정적인 치매태도 및 치매정책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 국민 대상 치매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치매, 지식, 태도,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dementia attitudes according to dementia education in university students on the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mentia knowledge. The participants were 306, 1~2 grad of students of U and K university in 2 G c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31, 2017,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21.0 program with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ducation group compared to the non-education group in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dementia knowledge, and dementia attitude according to the subject's dementia education. The level of dementia attitudes,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dementia knowledge and attitudes were more than moderate. Th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dementia knowledge and attitudes were significant. Dementia knowledge was a predictor of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 $t=2.35, p=0.019$ ) and showe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17.8%.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ystematically provid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s for the whole people to raise correct dementia knowledge, positive attitudes toward dementia, and awareness of dementia policies.

**Key words** : Dementia, Knowledge, Attitudes, students

\*정희원, 위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제1저자)  
\*\*정희원, 위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정희원,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참여저자)  
접수일: 2021년 1월 29일, 수정완료일: 2021년 3월 30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17일

Received: January 29, 2021 / Revised: March 30, 2021  
Accepted: April 17, 2021  
\*Corresponding Author: hjchoi@uu.ac.kr  
Dept. of Nursing, Uiduk University, Korea

## I. 서 론

### 1. 연구필요성

우리나라 치매인구는 2018년 약 70만 명으로 추정되고[1,2], 치매에 따른 총진료비가 2011년 11.7%에서 2015년은 17.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치매는 뇌세포가 손상을 입어 인지장애와 기능장애가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발병 가능성이 높고 일단 발병되면 완치나 치유가 어렵다[4]. 또한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기억과 인지장애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거나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결국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치매는 장기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므로[5,6] 가족과 함께 국가적 책임을 필요로 한다[4].

이러한 치매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대책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1차~3차에 걸쳐 수립하였고 치매의 특성을 고려한 치매지원 인력, 서비스 내용 등을 전문화시켜 실행하고 있다[7]. 대학생들은 향후 사회에서 노인부양에 주체가 되고 고령화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될 대상이므로[8] 치매 정책수립 및 치매 서비스 등에 대한 관심과 이것에 관한 정보와 인식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생의 치매정책인식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태도는 이미 형성된 선입견 안에서 제한적으로 보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 치매태도의 경우 치매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경향을 의미하는 것인데,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치매노인을 기피하는 행동적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6]. 즉, 치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지각하느냐에 따라 치매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6] 대학시기에 치매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는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일생을 살아가는데 초석이 되므로[9], 대학생에게 치매교육 제공뿐 아니라 올바른 치매지식과 긍정적인 치매태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치매에 대한 지식은 치매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치매원인, 증상, 예방가능성 등 치료, 관리 및 간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하며, 알츠하이머형, 혈관성, 기타 질병에 의한 모든 치매지식을

의미한다[10]. 선행연구에서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치매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11,12,13,14], 이러한 결과는 보건계열 대학생(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일반 대학생,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자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 이렇듯 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치매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치매지식을 습득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치매극복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치매파트너 교육과 봉사활동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일부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치매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대학생이 치매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치매교육 여부에 따른 그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인 치매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치매교육 여부에 따른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치매지식 매개효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치매교육에 따라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 치매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 치매태도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치매태도와 치매정책인식 간에 치매지식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치매교육에 따른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치매지식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개의 G 시에 소재한 4년제 U와 K 대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대학생 306명이었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에 따라 유의수준은 .05, 중간크기의 효과크기는 .15, 검정력  $1-\beta$ 는 .95를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에서 필요한 표본 수에 대해 독립변수 8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표본의 크기가 최소한 297명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3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불충분한 4부는 제외하여 최종 306부를 분석하였다.

###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치매정책인식 20문항, 치매지식 12문항, 치매태도 10문항, 일반적 특성 5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치매정책인식

치매정책인식은 치매정책과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의미한다[15]. 치매정책인식 도구는 Oh [16]와 Han [17]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뢰도를 측정 받은 도구를 Kwon [15]이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범위는 2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정책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71이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79이었다.

#### 2) 치매지식

치매지식은 질병자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치매의 원인, 치료 및 관리, 간호에 대한 것까지 포함하고, 알츠하이머형, 혈관성, 기타 질병에 의한 모든 치매지식을 의미한다[18]. 치매지식 측정도구는 치매종합관리 대책을 위해 개발되어 사용되었던 설문지[19]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하며,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수범위는 0점에서 최고 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지식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를 사용한 Kang [18] 논문에서 Cronbach's  $\alpha$ 는 .7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66이었다.

#### 3) 치매태도

치매태도는 치매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치매와 치매노인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18]. 치매에 대한 정서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Cho [20]가 개발한 것이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적인 5문항(1, 2, 3, 4, 5)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점수범위는 10점에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6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73이었다.

###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K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IRB-156호)을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9월 4일에서 9월 29일까지였고,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동의한 자를 연구 대상자에 포함 시켰다. 자가보고 방식으로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의 설문지 작성 시간은 15분 내외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 치매태도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치매교육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치매정책인식, 치매지식, 치매태도의 Pearson's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치매지식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Sobel test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수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84.3%이고, 학년은 1학년 58.2%, 결혼은 미혼이 97.1%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60.8%, 치매관심은 관심없다가 56.2%, 치매교육 경험은 없음이 60.1%, 치매인지정도는 모른다가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치매정책인식, 치매태도, 치매지식 정도

치매정책인식은 평균 71.68±47점, 치매태도 평균은 39.17±23점, 치매지식은 평균은 10.59±8점이었다.

### 3. 대상자의 치매교육에 따른 변수의 차이

대학생들 중 치매교육여부에 따라 치매정책인식과 치매태도, 치매지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t검증을 실시한 결과 치매정책인식(교육, M=73.06, 비교육, M=70.76, t=3.07, p=.002)과 치매지식(교육, M=11.04, 비교육, M=10.28, t=3.85, p<.000), 치매태도(교육,

M=40.63, 비교육, M=38.21 t=4.85 p<.000) 모두 교육 집단이 비교육 집단에 비해 평균이 높았고,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치매교육에 따른 변수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Subject's Education on Dementia(N=306)

Variable	Dementia education	n	M±SD	t (p)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No Education	122	73.06±6.53	3.07(.00)
	Education	184	70.76±6.31	
Dementia knowledge	No Education	122	11.04±1.27	3.85(.00)
	Education	184	10.28±1.91	
Dementia attitude	No Education	122	40.63±4.90	4.85(.00)
	Education	184	39.21±3.81	

4. 변수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치매정책인식과 치매지식(r=.209, p<.000), 치매정책인식과 치매태도(r=.410, p<.000), 치매지식과 치매태도(r=.218, p<.000)는 모두 정상관계를 보였다<표 2>.

표 2. 변수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306)

Variables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Dementia knowledge	Dementia attitude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1	-	-
Dementia knowledge	.209(.000)	1	-
Dementia attitude	.410(.000)	.218(.000)	1

5. 치매태도와 치매정책인식 간 치매지식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3단계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표 3. 치매태도와 치매정책인식 간 치매지식의 매개효과

Table 3. Mediating Effect of Dementia Knowledge Between Dementia Attitude and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Variable	B(SE)	β	t (p)	R <sup>2</sup>	F (p)	Dubin-Watson	VIF
phase 1	Dementia knowledge → Dementia attitude	.08(.02)	.21	3.89(.00)	.05	15.14(.00)	.827	1.00
phase 2	Dementia attitude →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60(.07)	.41	7.84(.00)	.16	61.49(.00)	.283	1.00
phase 3	Dementia attitude, Dementia knowledge → Recognition of dementia policy	.56(.07)	.383	7.19(.00)	.18	33.98(.00)	.301	1.05
		.47(.20)	.125	2.35(.01)				

치매지식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3단계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은 F 검정을 통해 p<.001에서 유의하였고, Dubin-Watson 값이 .301 ~.827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확립되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는 1.0~1.0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었다. 1단계에서 치매태도는 매개변수인 치매지식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t=3.89, p<.000), 영향력은 β=.21, 이에 대한 설명력은 4.7%였다. 2단계에서 치매태도는 종속변수인 치매정책인식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t=7.84, p<.000), 영향력은 β=.41, 이에 대한 설명력은 16.8%였다. 3단계에서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t=7.19 p<.000), 치매지식도 치매정책인식의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고(t=2.35, p=.019) 이에 대한 설명력은 18.3%였다<표 3>. 이때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β=.41에서 3단계에서 β=.38로 감소되어 부분 매개효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변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비표준화 계수를 Sobel test 공식에 대입하였으며, 그 결과 Z=2.61(p<.000)로 나타나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Sobel test

$$Z_{ab} = \frac{a \times b}{\sqrt{(a^2 \times seb^2) + (b^2 \times sea^2)}}$$

IV. 논 의

본 연구는 치매교육에 따른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치매지식 매개효과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결과 치매교육에 따른 치매인식, 치매태도 및

치매지식 모두 교육집단이 비교육 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Je 등[21]은 대학생에게 치매교육프로그램의 적용 후 치매 지식과 치매 태도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고, Park 등[22]의 연구에서는 노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치매 지식, 치매 태도 및 치매정책인식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치매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공감감이 없이 치매노인을 돌보기란 어려운 것이다[21].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노인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 노인건강과 관련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22]. 대학생들에게 치매교육은 치매지식의 향상뿐만 아니라 치매정책인식과 치매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치매문제 해결은 세대간 이해와 갈등해소의 척도이며 나아가 노인관련 정책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1]. 치매가 노인이면 누구나 걸리는 질병은 아니지만 유병율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문제발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 등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23]. 특히 치매노인을 돌볼 기회가 늘어남에 따른 적절한 의료서비스 해결은 치매노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긍정적 태도를 지닌 전문인력을 훈련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치매지식과 긍정적인 치매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24]. 그러므로 환자와 가족 중심적 치료와 관리 및 치매전문인력 유지와 교육 등 가족과 공공 건강관리가 상호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3].

본 연구결과 치매정책인식과 치매지식, 치매정책인식과 치매태도, 치매지식과 치매태도 모두 정상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교육프로그램 적용 후 치매지식 정도와 치매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24]. Choi와 Kwon의 연구에서도[25] 치매지식, 치매태도와 치매정책인식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긍정적인 치매정책인식이 치매지식을 높이고, 치매정책인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치매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치매 치료, 의사결정 및 지지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료서비스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24]. 또한 치매인식이 높을수록

치매태도가 좋아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도 높아지며, 치매 지식이 높을수록 치매태도와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과 의료인력의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26]. 치매는 더 이상 노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치매는 노인, 가족이나 대학생 등이 치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고 지역과 사회에서의 지지망 확보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6].

본 연구결과 치매태도와 치매지식은 치매정책인식의 영향요인이고 치매태도는 치매정책인식의 영향요인이며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지식에 대한 매개효과를 연구한 기존자료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으나 치매교육에 따른 치매지식의 향상이 치매태도와 치매정책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연구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22]. 치매관리와 인식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치매교육이며 이러한 교육내용에는 치매개선 홍보, 보호자 교육과 의료 및 비의료 전문가 교육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7]. 치매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인식은 노인교육의 부족과 부정확한 지식습득에 의한 것으로 노인의 건강문제를 관리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8]. 그러므로 올바른 치매지식과 긍정적인 치매태도 및 치매정책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 국민 대상 치매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치매교육에 따른 치매태도가 치매정책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치매지식 매개효과로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치매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선 및 국가 치매 예방과 관리정책 방향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치매정책인식(교육,  $M=73.06$ , 비교육,  $M=70.76$ ,  $t=3.07$ ,  $p=.002$ ), 치매지식(교육,  $M=11.04$ , 비교육,  $M=10.28$ ,  $t=3.85$ ,  $p=.000$ )과 치매태도(교육,  $M=40.63$ , 비교육,  $M=38.21$ ,  $t=4.85$ ,  $p=.000$ ) 모두 교육 집단이 비교육 집단에 비해 평균이 높았고,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치매정책인식과 치매지식( $r=.209$ ,  $p=.000$ ), 치매정책인식과 치매태도( $r=.410$ ,  $p=.000$ ), 치매지식과 치매태도( $r=.218$ ,  $p=.000$ )는 모두 정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특히 치매태도는 치매정책인식의 예측요인( $t=2.35$ ,  $p=.019$ )이면서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을 임의표집으로 추출하여 이를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타지역과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다양한 대상자를 토대로 치매지식, 치매태도, 치매인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와 분석방법 등으로 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치매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한 치매노인 지식 및 태도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References

- [1] Central Dementia Center. Available from: <https://www.nid.or.kr/main/main.aspx#> [cited 2018 January 30]
- [2] Yum MH, Kim JS,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Behavior of Employee at Geriatric Long-Term Care Facilities on Job Burnout and service Quality: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Leadership.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4), 99-104, 2019. <http://dx.doi.org/10.17703/JCCT.2019.5.4.99>
- [3]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Dementia Dictionary. Available from: [https://www.nid.or.kr/info/diction\\_list3.aspx?gubun=0302](https://www.nid.or.kr/info/diction_list3.aspx?gubun=0302) [cited 2017 January 01]
- [4] Kim JA, Ko JK, Moon SN, Dementia Knowledge and Related Factors in Middle-aged Adults.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18(2), 293-303, 2006.
- [5] Kim HJ, Jung DY, A Study of Cognitive Impairment,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Dementia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5(3), 731-749, 2015.
- [6] Lee JE, Jang YJ, A comparative study of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attitudes towards dementi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1), 233-260, 2016. <http://dx.doi.org/10.15709/hswr.2016.36.1.233>
- [7] Lee YJ, A Study on the Dementia Attitude and Depression of Residents in a Community.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Dementia*, 13(1), 43-49, 2019.
- [8] Lee HJ, Care giving experience and adaptation process of the husbands who are caring for wives with Alzheimer-focusing on elderly couple householdy.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1), 45-62, 2006.
- [9] Jo SH, Kim EH, A comparative study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dementia Partner Nursing Students on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7), 317-323, 2018. <http://dx.doi.org/10.15207/JKCS.2018.9.7.317>
- [10] Kang HK, Knowledge and attitude of dementia - For some professional soldier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2010.
- [11] Park SJ, Park KS, Kim YJ, The Effects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ttitude, Perception toward Dementia and Dementia Poli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467-4477,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467>
- [12] Lee JE, Jang YJ, A comparative study of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attitudes towards dementi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1), 233-260, 2016. <http://dx.doi.org/10.15709/hswr.2016.36.1.233>
- [13] Kim SH, An OH, & Park DH, Nursing students and social welfar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dementia.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6(3), 111-117, 2015. <http://dx.doi.org/10.15207/JKCS.2015.6.3.111>
- [14] Oh BY, A study of knowledge and attitude factors on dementia in cybe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5(1), 111-127, 2016.
- [15] Kwon BI,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toward the aged with dementia in Chung Cheong Buk - 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2008.
- [16] Oh MJ, The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dementia in Korean soc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2.
- [17] Han JS,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recognition and attitude about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2004.
- [18] Kang HK, Knowledge and attitude of dementia - For some professional soldier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2010.
- [1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BOARD\\_FLAG=00&CONT\\_SEQ=45452&page=1](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BOARD_FLAG=00&CONT_SEQ=45452&page=1) [cited 2008 September 19]
- [20] Cho HO, The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citizen about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1999.
- [21] Je NJ, Park MR, Yang HJ, Kim SY, Effects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 on College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wareness of Aged Support, and Cognitive-Affective Empath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4, pp.100 - 111.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4.100>
- [22] Park SJ, Park KS, Kim YJ, The Effects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ttitude, Perception toward Dementia and Dementia Poli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7, pp.4467-4477,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467>
- [23] Kim YS, Cho WS,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ementia by Students of Physical Therapy - Gwangju and Jeonnam,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Science, Vol.25, No.3, pp.43-52, 2018. <http://dx.doi.org/10.26862/jkpts.2018.12.25.3.43>
- [24] Kang HY, Chae MY, Seo HS, Yang KM, The Effect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1, pp66-77.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1.69>
- [25] Choi HJ, Kwon YC, The Effect Dementia Knowledge and Attitude on Dementia Preventive Behavior of Adults, Vol.6, No.3, pp.9-17, 2020.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444>
- [26] Kwon BI,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Toward the Aged with Dementia in Chung Cheong Buk - Do, Cheongj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 [27] Kim KH, Yun EG, A Study in Terms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al Method of Dementia Management System on Local Community : An Analysis of Relative Importance Using the Method of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0, No.2, pp.1-27, 2016.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770098>
- [28] Isabella, M., & Frederic, M., "Attitudes towards hospitalized older adul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47, No. 4, pp. 446-453, 2004. DOI:<http://dx.doi.org/10.1111/j.1365-2648.2004.03122.x>